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쉽톡 금융 살맛나는~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1일 오전 8시께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 당국이 굴삭기를 동원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 = 담양소방서 제공

'영광 안마도 143.2㎜' 요란한 장맛비… 피해도 잇따라

전남 6개 시군 산사태 주의보, 14개 마을 79명 대피
침수 우려·나무 쓰러짐 등 광주 44건·전남 18건 발생
교통 통제 이어져… 비 22일 새벽까지 최대 100㎜↑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거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이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 상당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영광 안마도 143.2㎜, 곡성 옥과 120.5㎜, 담양 봉산 112.0㎜, 광주 110.7㎜, 함평 107.5㎜, 장성 상무대 104.0㎜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담양 봉산 47.5㎜, 구례 42.5㎜, 곡성 39.5㎜, 광주 39.1㎜, 나주 다도 39.0㎜ 등을 기록, 강한 비가 내렸다.

광주를 비롯해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 흑산도·홍도 등 전남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광양·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 6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담양·곡성·장성 14개 마을 55세대 주민 79명이 대피했다.

단기간 많은 비가 내려 관련 피해 신고 접수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이번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등 44건의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전남에서는 수목전도 8건과 배수지원 5건 등 18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무안 현경에서는 벼 2㏊, 밭콩 1㏊ 등 3㏊의 농작물 침관수 피해가 발생했다.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하천 진·출입로 336개소와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 37개소, 하천 징검다리 57개소, 둔치 주차장 11개소, 하상도로 1개소 등 구간을 통제 중이다.

전남은 국립공원 5개소, 여객선 4항로 5척, 하상도로 8개소, 둔치 주차장 21개소, 산책로 10개소, 징검다리 6개소 등 통제하고 있다.

기상청은 22일 새벽까지 광주·전남에 30~80㎜ 상당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와 전남북부 등 많은 곳은 100㎜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이날 밤까지 광주·전남북부에 시간당 20~30㎜, 일부는 30~5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저지대·농경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낙뢰사고 등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바람도 강해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광춘 기자

광주시, '선 넘는 여행'으로 '상생 관광' 시동

MZ세대 릴스 챌린지·1박2일 팸투어… 연계 관광 추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와 전남을 잇는 이색적인 여행 콘텐츠 '선 넘는 여행'을 선보이는 등 지역 간 상생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광주 중심의 홍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광주의 문화·산업과 전남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1박2일 코스를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해 관광 홍보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선 넘는 여행'은 광주시 홍보종합 플랫폼 '모두의광주'(news.gwangju.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첫 영상은 광주 댄스팀 '빛고을댄서스'의 리더 오천이 출연하는 예고편으로 시작해 4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0일 공개한 1편 '감성여행 MZ투어: 열정 광주 VS 힐링 담양'은 엠제트(MZ)세대 대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와 담양을 여행한 뒤 이를 릴스 형식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시민참여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어 ▲2편 '세대공감-손자투어' ▲3편 '여름휴가는 탄소저감여행' ▲4편 모두의 축제 등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엠제트(MZ)세대 인플루언서 및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테마형 팸투어도 추진한다. 7월 17~18일 1박2일 일정으로 총 10명을 초청, 광주 도심에서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과 담양 죽녹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또 전남 인접 시·군과 산업·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팸투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대변인은 "'선 넘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 홍보를 넘어 문화·산업·환경 등 다방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팸투어를 통해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선 넘는 여행' 시리즈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고, 방문객에게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광주 관광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도일 기자

장마철 높아진 습도에 땀 뻘뻘… 여름철 감전 사고 주의

광주·전남 2023년 감전 사고 41건… 5명 숨져
6~8월에만 21건(51.2%)… 사망자도 4명 몰려
건설·산업현장 사고 많아 "절연보호구 꼭 착용"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높아진 습도 탓에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감전사고 상당수가 6~8월 여름철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전기 감전 사고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사고가 21건(51.2%)이었다.

광주에서는 한해 총 11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4월 3건, 6월 3건, 7월 2건(1명 사망), 8월 2건, 9월 1건 등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63.6%(7건)가 여름철인 6~8월 집중됐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무려 30건의 감전 사고가 발생,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월별 발생 현황을 보면 1월 1건(1명 사망), 2월 4건, 4월 1건, 5월 2건, 6월 6건, 7월 3건(2명 사망), 8월 5건(1명 사망), 9월 2건, 11월 4건, 12월 2건이다.

전남 역시 전체 사고의 절반 수준인 14건(46.7%)이 6~8월에 발생, 사망자도 4명 중 3명(75%)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사고 장소를 보면 주거 12명에 이어 공장·작업장 7명, 빌딩·오피스텔 4명, 공사장 3명, 통신주·가로등 2명 등 건설·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전기공사 보수(9명)나 전기운전·점검(5명), 가전기기·운전보수(3명), 간판 설치·통신시설(2명), 기계설비공사·보수(2명) 등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에는 전반적인 습도가 높아지고 땀으로 인해 감전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1일에는 전남 함평군 월아면 한 야외 상수도시설에서 가압장치 교체·수리 작업 중 배전판을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맨손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장성군 한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핸드 드릴을 사용하던 60대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 8월19일에도 광주 한 공장 배전실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외주업체 직원이 감전돼 숨졌다.

8월29일에는 장흥 한 풍력발전소에서 전력 설비를 점검하던 20대·30대 작업자 2명이 감전돼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젖은 손으로 플러그 등을 만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콘센트나 멀티탭 주변을 청소하라고 조언했다.

손상된 전선을 교체하는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 비가 내릴 경우 전기 관련 작업을 중지하고 절연 보호구를 꼭 착용하길 당부했다. /이승원 기자